

종교개혁과 反종교개혁에 관한 연구

A Study of Reformation & Counter Reformation

宣君星*

〈목 차〉

- I. 서 론
- II. 종교개혁과 反종교개혁의 배경
 - 1. 15~16세기의 로마 가톨릭교회의 폐단
 - 2. 교황권의 실추와 시련

- III. 新·舊兩基督教 세력간의 교회개혁 및 교리에 관한 논쟁
 - 1. 프로테스탄트: Luther, Zwingli, Calvin, Müntzer
 - 2. 가톨릭: 개혁 교황들, 예수회, Council of Trent

- IV. 결 론

I. 서 론

서구 근대사에서 1517년에서 1648년까지의 시기는 통상 ‘종교개혁’(Reformation)과 ‘종교전쟁’(religious wars)의 시대로 불리운다. 이 시기는 종래 중세 전성기 동안에 중세의 종교와 정치를 지배했던 통일된 서구의 世界觀(Weltanschauung)이 깨어지고 인간의 思考와 인식상에 새로운 地平이 열리는 실로 서구 근대문명의 黎明期였다.¹⁾

이 시기에 마르틴 루터²⁾, 쯔빙글리³⁾, 칼빈⁴⁾, 그리고 토마스 문씨⁵⁾ 등의 소위 종교개혁가들은 ‘오직 신앙만으로’(sola fides), ‘오직 성경에 의해서만’(sola scriptura), 그리고 ‘오직 은총을 통해서만’(sola gratia)이라는 3가지 다만(sola) 교리⁶⁾를 내세우면서 전통 가톨릭교회의 可見的 聖事(sacramenta) 제도를 비판하고 교황의 無謬性과 교회에 대한 교황의 首位權 및 교황이 인간을 救援(redemption)으로 이끌기 위해 神으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犀的 裁治權(=敎導權) (ius magis-

* 효성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 1) Donald Weistain(ed.), *The Renaissance and the Reformation 1300–1600*(New York · London, 1965), pp. 23–34 ; Richard S. Dunn, *The Age of Religious Wars 1559–1689*(New York, 1970), ix-xi ; Marvin R. O'Connell, *The Counter Reformation : 1559–1610*(New York · London, 1974), pp. 1–31.
- 2) Ernst Troeltsch, *The Social Teaching of the Christian Churches*. Volume one, trans. by Olive Wyon (London, 1950), pp. 56–70.
- 3) 아우구스트 프란츠 著, 崔奭祐 譯, 『敎會史』(西江大學校神學研究所編, 『神學叢書』第二十二卷) (서울, 문도출판사), pp. 320–328.
- 4) Ibid., pp. 328–336 ; Willem Balke, *Calvin and the Anabaptist Radicals*, trans. by William Heynen (Michigan, 1981), pp. 34–68.
- 5) 崔奭祐 譯, 『敎會史』, pp. 70–90
- 6) Ibid., pp. 289–299.

sterium)을 부인하였다.⁷⁾ 이와 같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가들의 주장은 기존의 교회제도의 관행과 교리 및 典禮상에 심대한 도전이 되었다. 이에 기성 가톨릭교회 소속의 修道者들과 성직자들은 전통교회 내부의 폐단과 구습을 혁파하고 자체 教義를 재정비·강화하는 활동에 나섰는데 이것이 주지하다시피 가톨릭 교회내부의 개혁운동 내지 ‘反宗教改革’(Counter Reformation) 운동이었다.⁸⁾

본고에서는 전술한 종교개혁운동의 基調를 오늘날 확립된 정통 기독교의 교의신학적 입장에서 재성찰해 보고자 하며 더나아가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이 추구했던 종교개혁의 목표가 그것이 실로 수천년의 역사적 기반을 지니고 있는 기독교라는 종교자체를 전반적으로 새롭게 재형성(Reformation)하려고 한 것이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단지 그것이 교회내부의 淨化(Katharsis) 내지 改革(Reform)의 성격을 띤 운동이었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규명해 보려 한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기독교의 教義神學(Dogmatik)의 중요 요소를 이루고 있는 교회제도의 본질과 기능, 교회의 首位權, 教導權, 미사(Missa)시의 全質變化 또는 化體(Transsubstantiation), 聖事의 효력(事效性과 人效性等), 義化(Rechtfertigung)문제, 救援문제에 있어 神의 은총(gratia dei) 작용과 인간의 自由意志 및 善業의 역할 등의 문제에 대한 16세기 당대 종교개혁가들 내지 프로테스탄트들의 입장과 그리고 가톨릭 개혁가들의 입장은 상호 비교·분석해 보면서 어느 입장이 보다 더 하느님의 啓示的 진리인 기독교적 진리에 접근해 있었는가를 현재적 입장에서 겸허하게 재성찰해 보려 한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이와같은 교의신학적 재성찰에 앞서 먼저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와 15~16세기 교황권의 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역사적 고찰을 통해서 알아 보려 하며 그런 연후에 본 논문의 주제인 16세기 新·舊兩基督教세력들의 교의신학적 입장표명에 관해 분석해 보려 한다.

II. 종교개혁과 反종교개혁의 배경

1. 15~16세기의 로마 가톨릭교회의 폐단

16세기초에 유럽대륙의 교회는 술한 변화에 직면하였다. 곧 당대 유럽대륙생활의 전반에서는 오늘날 상상하기 어려운 온갖 醜聞과 弊端, 그리고 無秩序가 난무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亂世에 즈음하여 여러 곳에서 깊은 경건심과 개혁의 열기가 일고 있었다.⁹⁾ 로네상스운동은 새로운 휴머니즘정신으로 기독교적 思考方式을 살찌어 해주려고 플라톤주의와 기독교를 보다 크게 결합시키려 하였고 그리고 성경과 고대의 기독교敎父들이 지은 原本들에 대한 관심을 크게 일으켜 주었다.¹⁰⁾ 또한 이탈리아 곳곳에서는 종교부활운동이 크게 대중적 성격을 띠고 일어났는데 특히

7) Ibid., pp.320-334.

8) Marvin R. O'Connell, op.cit., pp.83-241; 최석우, 前揭書, pp.345-372.

9) Herbert Butterfield, “Christianity In History”, in : Philip P. Wiener(ed.), Dictionary of the History of Ideas. Studies of Selected Pivotal Ideas, Volume I(New York : Charles Scribners Sons, Publishers, 1978), pp.388.

10) Ibid.

플로렌스에서 Savonarola와 연관을 지닌 종교부활운동은 유명하였다. 修道院제도도 그 규율이 灵性생활을 강조하면서 성격면에서 근본적인 동요를 겪었다. 또한 교육발전도 이뤄졌는데 예컨대 네델란드에서는 공동생활 형제단이 종교학교를 세웠고 15세기 독일에서는 대학들이 성직자들과 교황의 후원하에 수립되었다.

이러한 운동들의 대부분은 아래로 부터 발생한 지방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교회의 고위성직자들은 이러한 사태진전들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었고 통상 이러한 상황들에 관해서 매우 부관심하였다. 실제 이때 가톨릭체제의 지도자들이 종교생활에 대한 그들의 지도력을 유지하거나 또는 가톨릭체제의 전반의 부활을 보장하는데 요망되는 최소한도의 조치들을 취했는지의 여부는 매우 의심스럽다.¹¹⁾ 어떤 지역에서는 성직자들의 기강이 해이해져서 그들의 설교활동(講論)이 매우 침체되어 있었는데 이로 인해 항시 교회를 강탈하고자 그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던 군주들은 단지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들에게만 教職에로의 문호를 열어주려고 하였다.¹²⁾

한편 너무나도 많은 교회의 부담이 下位 성직자들에게 지워져 있었다. 이들은 때로는 그들 자신의 종교의 본질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하위 성직자들은 그들의 처지에 관해 불만족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중에 상당한 수—특히 소수의 탈발 수도에 속한 성직자들—가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하였고 개종후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다.¹³⁾

한편 異教(paganism)와 미신이 너무나도 많이 당대 일반 기독교에 뒤섞이게 되었고 이에 편승하여 당대 세속권력층들은 内的 人間(inner man)과의 연관을 상실한 채 기계적으로 영위되고 있는 救援장치(salvation-devices)인 奇蹟이나 神祕에 의존하고자 한 무지한 대중들의 신앙심을 크게 악용하려고 하였다.¹⁴⁾

이와 같은 종교적·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당대의 종교개혁가들은 하충민들이 종래에 聖像, 교회의 전승, 賦罪符=大赦(indulgencia), 그리고 聖人們에의 祈願의 태도에서 노정한 맹목적이고 미신적인 관행을 공박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보다 내면적이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요구하고 나섰다. 따라서 종교개혁은 한편으로는 세속통치자들의 기존 교회세력에 대한 커다란 질투와 탐욕에 의해서 또 한편으로는 성직자들과 교회조직 그 자체 안에서의 폐단과 신자들의 기계적인 신앙태도에 대한 경건한 신앙심을 지닌 사람들에 의한 신앙부활운동에 의해 촉구되었던 것이다.

2. 교황권의 실추와 시련

그런데 당시 교황권은 어떠한 상태에 있었나? 중세시대부터 교황은 황제와 더불어 지상에서의 하느님의 主權을 代行받은 하느님의 代理者(Vicar)로서 군림해 왔다. 즉 교황은 마태복음 16:18-19절의 이른 바 “천국의 열쇠설”(Key to the Heaven)에 의거하여 하느님으로부터 지상에서의 신자들의 灵神의 생활에 대한 裁治權(sacrosanctum)을 대행받아 행사해 왔다. 이때 물론 황제는

11) Ibid.

12) Ibid.

13) Martin Vogt(Hrsg.), Deutsche Geschichte : Von den Anfängen bis zur Wiedervereinigung, Zweite Auflage (Stuttgart : J. B. Metzlersche Verlagsbuchhandlung, 1991, S. 144-147 ; 159-165).

14) Kurt Galling(Hrsg.), Die Religion in Geschichte und Gegenwart. Handwörterbuch für Theologie und Religionswissenschaft, Erster Band A-C(Tübingen : J. C. B. MOHR(Paul Siebeck), 1963), S. 1702-1706.

臣民들에 대한 세속적인 통치권(imperium)을 행사해 왔다. 그리하여 중세시대는 13세기의 법학자 Eike von Repgow가 그의 法書 *Sachsenspiegel*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雙劍’(zwei Schwerter) – 教權과 俗權(帝權) – 이 지배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쌍검’ 이론은 11세기 중엽이후 교황 그레고리(Gregorius) 7세가 級任權鬭爭(Investiturstreit)에서 신성로마황제 하인리히(Heinrich) 4세를 이긴 이후에는 教皇의 全權(plena potestas pontificis) 주장으로 변질되었다. 곧 교황은 神으로부터 직접 教·俗兩大權을 대행받아 관장하다가 교황은 재차 俗權(帝權)을 황제에게 委任하였다고 주장되었다.¹⁵⁾ 14세기초에 프랑스의 국왕 필립(Philip) 4세에 의해 교황 보니파키우스(Bonifacius) 8세가 위의 서임권을 재차 빼앗길 때까지 무려 300여년간 교황권은 그 절정에 다달았다. 교황권이 절정에 이르러 十字軍운동을 직접 명령하였던 때인 13세기의 교황 인노센트(Ignatius) 3세(1198~1216)는 자신은 태양(sol)이요 황제는 달(luna)이라고 自矜하기도 했다.

아비뇽 幽閉사건(1309~1376)과 교회 대분열시기(1378~1417)를 겪으면서 교황권은 크게 실추되었는데 15~16세기 동안의 르네상스기의 교황권행사의 실태는 더욱 실망스러웠다. 聖斯러워야 할 교황의 聖座가 플로렌스의 유력한 가문인 메디치家の 俗人們에게 賣官되었고 기타 고위성직을 포함하여 많은 聖職이 교회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하였다. 20세기 미국의 저명한 서양문화사가의 연구에 의하면 교황 Leo 10세 당시에 로마 교황청에서는 년간 2000여개의 聖職을 賣買(simony)하여 100만弗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니¹⁶⁾ 가히 당시의 실추된 교황권행사의 폐단이 어떠하였는지를 짐작하고도 남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중앙집권화된 교회는 군주를 비롯한 여러 속인들에게 베푸는 施惠(benefices)와 寬免조치(dispensations) 및 특히 속벌부(大赦證)의 판매등을 통해서 교회와 고위 성직자들의 화폐욕구를 채워 나갔다.¹⁷⁾

이처럼 당시 르네상스기의 인문주의적 복고풍과 맞물려 확산된 세속주의의 물결과 특히 아메리카 신대륙의 발견 이후 초래된 가격혁명(The Price Revolution)과 상업주의의 영향으로 성직자들이 중세기간에 오랫동안 간직해 왔던 성직자들 고유의 에토스(ethos)는 크게 동요되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St. Augustinus 수도회 소속의 神父로서 성경의 로마서 1장 17절의 구절 – “누구나 신앙에 의해서만 義로와질 수 있다”(Everyone is justified only by faith.) –에 입각하여 소위 “믿음에 의한 義化論”과 “萬人 司祭說”的 새로운 神學이론을 Wittenberg대학의 신학부에서 1512년 이후 강의해 온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그대학 성당문 앞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내세워 도미니쿠스 수도회 출신의 修士 텅첼(Tetzel)의 속벌부판매와 연관된 강론의 그릇됨을 지적함과 아울러 중세 후기의 Peter Lombard와 St. Thomas Aquinas의 신학체계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나선 것은 必致의 사실이었다.

일명 토미즘으로도 알려진 스콜라학파의 신학체계는 13세기초(1220년경)에 부활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 신앙과 이성을 조화시키려 하였고 또한 實在論(Realism)에 입각하여 보편적인 神의 存在와 아울러 교황권의 優位를 인정한 가운데 俗權과 教權의 並行主義를 주장

15) Karl August Eckhardt(Hrsg.), *Sachsenspiegel*, 1. Landrecht, 2. Lehnrecht, 2. Bearb., Göttingen-Berlin-Frankfurt 1955/1956, S. 104–110.

16) Edward McNall Burns, *Western Civilizations. Their History and Their Culture*, Sixth Edition(New York : W. W. Norton & Company, INC., 1963), pp. 440–441.

17) Ibid., p. 441.

하였다¹⁸⁾

그러나 14세기초에 스콜라학파의 신학체계는 같은 스콜라학파의 일원이면서 프란체스코 수도회에 소속되어 있던 영국의 오кам(William of Occam)이 唯名論(Nominalism)을 주장하면서 중대한 도전을 받아왔는데¹⁹⁾ 이러한 후기 스콜라학파의 등장으로 가톨릭教界내에서도 통일된 기독교圈(respublica christiana)내에서 보편적인 教導權(potestas sacrosancti)을 행사해 왔던 교황권에 대한 도전도 만만치 않았다. 그리하여 그 간에 교회주권론 내지 公議會主權論등이 비등하여 16세기에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에서 이 문제에 관한 최종적인 입장이 정리될 때까지 교황의 靈神的 권한에 대한 논쟁은 심화되어 왔었다.²⁰⁾

그러면 이제부터 본 논문의 핵심테제인 16세기 종교개혁기에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가들과 가톨릭 개혁파들이 기독교教義의 핵심요소인 교회제도, 교황의 首位權(Supremacy)과 無謬性(Infallability), 聖事制, 義化(Justification : Rechtfertigung), 그리고 救援문제에 있어 神의 은총과 인간의 自由意志(free will : voluntas liber)의 역할 등에 관하여 벌인 논쟁에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자.

III. 新·舊兩基督教 세력간의 교회개혁 및 교리에 관한 논쟁

1. 프로테스탄트 : Luther, Zwingli, Calvin, Müntzer

전술한 바와같이 프로테스탄트 개혁가들이 공통으로 주장한 기독교교리에 관한 핵심논의는 ‘오직 신앙만으로’(sola fides), ‘오직 성경에 의해서만’(sola scriptura), ‘오직 神의 은총에 의해서만’(sola gratia dei) 등의 3가지 ‘다만’(sola)說이었다. 또한 이들은 ‘靈的 教會’(ecclesia spiritualis)를 추구하면서 기존의 가톨릭교회의 可視的(ecclesia conspicuus(corporis)) 성격을 공박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러한 가견적 교회제 위에서 보편적인 裁治權, 즉 首位權을 주장하는 교황제와 그리고 교황의 무류성 주장을 虛構라고 반박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교회의 주권은 신자공동체(communitas fidelis) 내지 성직자대표들의 모임인 公의회(consilium ecclesiae)에 있다고 주장하였다.²¹⁾

또한 구원(salvation)문제에 있어서 이들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善行(善業)의 역할을 철저히 부인하고 오로지 신의 은총(gratia dei)의 의한 구원, 즉 신의 전능한 의지 내지 주권의 작용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인간에게 보이지 않는 신의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기 위한 可視的

18) John W. Baldwin, *The Scholastic Culture of the Middle Ages 1000–1300*(Lexington : D. C. Heath And Company, 1971), pp. 79–97 ; Martin Grabmann, *Die Geschichte der Scholastischen Methode*, Zweiter Band : *Die Scholastische Methode im 12. und Beginnenden 13. Jahrhundert* (Darmstadt : Wissenschaft – Liche Buchgesellschaft, 1988), S. 168–229.

19) Joachim Ritter und Karlfried Gründer(Hrsg.),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Band 6 : Mo – O(Stuttgart, 1984), S. 876–880 ; Frederick Copleston, *A History of Philosophy*, Volume III Ockham To Suarez(Westminster : The Newman Press, 1959), pp. 3–17, 77–110.

20) Brian Tierney, *Religion, law, and the growth of constitutional thought 1150–1650*(Cambridge · London ·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pp. 60–71 ; 92–97.

21) 최석우, 『教會史』, pp. 287–303.

媒體인 기존의 가톨릭 聖事制(sacramentum)를 執典하는 성직자들의 灵神的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오로지 성경에 대한 개인의 확고한 믿음(신앙)과 믿음의 실천에 의한 구원만을 역설하였다.²²⁾ 이러한 입장은 루터, 쯔빙글리, 칼빈, 그리고 문제 등에서 각기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면서 노정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도록 하자.

먼저 루터부터 볼 것 같으면 루터는 본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소속의 신부였기 때문에 그가 1517년에 로마교황청의 독일에 있어서의 大赦符판매와 이와 연관된 텃เซล의 煉獄靈魂의 구원에 관한 통속적인 강론에 대한 반박으로 내세운 95개조의 반박문의 취지는 본래 可見的 교회제도와 교황제를 비난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단지 대사의 남용과 대사의 거래적 관념—“돈이 현금함에 땡그렁하고 떨어지자마자 연옥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라는—에 관해 자신이 1517년 비텐베르그 수도원 탑안의 방에서 겪은 소위 ‘탑의 체험’에서 터득한 새로운 신앙관과 구워관에 입각하여 공박하기 위함이었다.²³⁾ 그러나 그가 1519년 6월 27일~7월 16일에 親교황청 신학자인 요한 에크(Eck. 1486~1543)와의 라이프찌히 토론회를 거친 후 1520년 6월 15일에 교황청으로부터 破門(excommunication) 위협의 대처서(Exsurge Domine)를 통보받은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反교황제적 内지 反교회적인 태도로 전환하였다.²⁴⁾ 특히 1521년 Worms 제국의회에서 신성로마 황제 Karl 5세 앞에서 보인 루터의 反가톨릭 교회적·反교황적 입장은 단호하였다. 1520년에 지은 루터의 3권의 저서—① ‘기독교 상태의 개선에 관해 독일민족의 크리스챤 귀족들에게告함’(An den christlichen Adel deutscher Nation von des christlichen Standes Besserung) (1520, 8월), ② ‘교회의 바빌론 幽閉에 관하여, 서론’(De captivitate babylonica Ecclæsiae præludium) (1520, 10월), ③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Von der Freiheit eines Christenmenschen) (1520, 11월)—는 이러한 루터의 단호한 입장을 잘 대변하였다.²⁵⁾

주지하다시피 루터의 이러한 신학적 태도는 Gabriel Biel로부터 전승받은 오캄의 唯名論의 영향이 컸다. 오캄의 이론 바 ‘새로운 사고’ 내지 ‘새로운 방법’(vis moderna)은 신앙과 이성(지성)을 조화시키고 또 ‘存在의 類化’(analogia entis)를 통해 자연에서 神으로의 결론—神存在的 자연적 증명—을 이끌어내려 했던 토미즘(Thomism)의 ‘낡은 사고’ 내지 ‘낡은 방법’(via antiqua)을 대치하고자 한 것이었는데 루터는 이러한 오캄적·유명론적 인식론을 통해서 자연과 초자연 사이에는 어떠한 교량도 없고, 신과 인간은 인간의 이성이 뛰어넘을 수 없는 深淵에 의해 서로 분리되어 있으며, 신이 인간에게 啓示에 의해 자신을 드러낼 때 비로소 인간은 신을 認知할 수 있다고 믿었다.²⁶⁾ 그리하여 그는 인간이 자기노력을 통해(善行과 善業의 正義) 구원을 얻고자 하는 행위는 神意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고 神意에 비해서 인간의 의지는 단지 무기력하거나 ‘노예의지’(voluntas servus)일 뿐이라고 하였다.²⁷⁾ 이러한 입장에 선 그는 성직자들이 執典하는 聖事制度에 토대를 두고 있는 기존의 가톨릭교회의 구원능력을懷疑하고 이러한 교회에 대한

22) 李亨基 著,『宗教改革 神學思想』—루터와 칼빈을 中心하여—(서울: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84), pp. 105~124; 229~238; 418~451.

23) 崔奭祐,『敎會史』p. 297.

24) Ibid., p. 301.

25) Ibid., pp. 302~303.

26) 崔奭祐,『敎會史』, pp. 295~296.

27) Hyung-Ki Rhee, The Theology of The Reformation. A Comparative Study On Martin Luther's and John Calvin's Theology(Seoul: PC & TS Press, 1984), pp. 229~238.

보편적인 首長(位)權을 주장하는 교황의 灵神的 권한을 부인하였다. 또한 그는 중세기간 오랫동안 傳承되어 온 성직자들의 獨身制(Celibacy)를 비난하고 스스로 탈속수녀와 결혼하였다.

그런데 루터는 聖體聖事(Eucharist)시에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한다는 가톨릭교의 全質變化 내지 化體說(Transsubstantiation)은 믿지를 않았지만 이 聖餐式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灵的으로는 現存함을 인정하였다.²⁸⁾ 즉 그는 성찬식때에 司祭가 빵의 형상을 지닌 성체에 대해 “이는 내 몸이다.”(hoc est corpus meum)라고 말할 때에 실제로 이 순간에 성체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현존함을 믿었다. 그러나 이점에 있어서 후에 쓰빙글리는 ‘hoc est corpus meum’ 할 때에 ‘est’의 의미는 단지 상징적인 의미만을 지닌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설을 부인하였다.²⁹⁾

스위스의 쓰빙글리(1484~1531)는 루터와는 달리 ‘구방법’(via antiqua)과 인문주의의 교육 배경하에서 성장하였지만 철저한 聖書主義와 신의 은총론에 있어서는 루터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그는 전술한 바와 같이 성찬식 때에 빵의 형상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灵의으로 현존함을 부인하였고 또한 그의 「그리스도교 개론」(1523)에서는 모든 예식과 祝聖(Weihe)의 폐지, 성당 聖書像의 제거, 미사(Missa)의 폐지, 수도회의 해산, 교회 聖職祿의 개편, 市立婚姻裁判所 설치와 主教의 혼인재판권 등 루터보다 급진적인 개혁안을 제시하였다.³⁰⁾

한편 쓰빙글리는 幼兒洗禮(infant baptism)의 聖事의 意義에 관해서는 이를 否認 – ‘다만 신앙에서’(sola fides)라는 종교개혁적 義化觀에 의해 幼兒들이 아직 신앙을 가질 수 없는 한에서는 그 세례가 거짓이고 무익하다는 주장 – 했던 再洗禮派(Anabaptist)들과는 달리 가톨릭교의 입장을 견지하였다.³¹⁾

그런데 종교개혁사에서 프랑스 출신의 요한 칼빈(1509~1564)만큼 오늘날에까지도 심대하게 국제적 내지 세계사적 영향을 미쳐 준 인물은 없을 것이다.

칼빈은 루터보다 더 철저하게 하느님의 말씀과 신앙을 그의 성서신학의 기반으로 삼았다. 그는 1536년에 익명으로 「基督教綱要」(Institutio religionis Christianae)를 간행해서 이를 1559~1560년 사이에 수정·증보해 나아갔다. 그는 여기서 오직 참된 그리스도 교회여야 할 기준하고 박해받는 이들의 작은 교회를 옹호하고 지상에서 可觀的 모습을 지니고 막대한 권위와 富를 소유한 로마의 位階의 교회를 비난하였다.³²⁾ 그리고 그는 참된 교회의 標職(notac ecclesia)는 하느님 말씀의 순수한 설교이고 聖事의 올바른 관리라고 하였다.³³⁾

그는 성령은 聖事의으로 해석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신앙을 일으키며 이 신앙은 하느님의 선물이요 그의 선택된 증거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선택된 것이고 또한 그는 이에 따라 생활하게 되고 생활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신앙은 착한 그리스도교적 생활에서 실증되어야 한다. 이리하여 지상생활에서의 증거는 동시에 영원한 생명으로 선택되었다는 확신의 토대이다.³⁴⁾ 그런데 말씀에 대해 신앙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선택의

28) 崔庚祐, 「教會史」, p.311.

29) Ibid.

30) Ibid., p.322.

31) Ibid., p.323.

32) Ibid., p.330.

33) Ibid.

34) Ibid., pp.332~333.

은총이 없다. ‘그러므로 그는 하느님으로 부터 배척된 자이다’³⁵⁾

하느님은 사실 어떤 이들은 은총으로 예정한 것처럼 의도하시고 또 어떤 이들은 파멸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이중적 예정, 다시 말해서 선택과 저주로의 예정설은 칼빈의 가혹한 신학적 사고를 특징지우고 있다.³⁶⁾

그런데 이 예정설은 교회개념 및 선택의식과 결부됨으로써 칼빈의 신봉자들의 활동력을 마비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그것을 자국하였다. 또한 칼빈 신봉자들에게는 神으로부터 구원받은豫定의 두번째의 증거가 있었으니 그것은 개혁파 교회에 속하는 일이었다.³⁷⁾ 왜냐하면 개혁파 교회 밖에서는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없고 따라서 구원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칼빈은 교회를 ‘볼 수 있는 것’인 동시에 ‘볼 수 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에게는 하느님의 말씀이 올바로 설교되고 성사가 올바로 관리되는 교회만이 참된 교회로 보였는데 이 두 가지를 다 기존의 가톨릭 교회는 결여하고 있다고 여겼다. 그래서 그는 가톨릭교회는 거짓된 교회이고 멸망될 수밖에 없는 악마의 소산으로 여겼다.³⁸⁾

한편 그는 성체교리에 있어서 領聖體하는 순간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현존함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는 가톨릭교리와 마찬가지로 루터의 實在論도 우상숭배론이라고 거부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쭈빙글리의 의미적이고 다만 상징적인 現存說은 너무나도 신앙심이 부족한 교리라고 배척하였다.³⁹⁾

한편 칼빈은 이와 같은 입장은 1539년 9월에 추기경 ‘사도레타에게 보낸 서한’(Letter to Cardinal Sadolet) – 추기경 사도레타는 제네바를 가톨릭 공동체안에 머물도록 제네바 시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음 –에서 보다 단호하게 표명하였다. 곧 그는 여기서 구교회와 완전히 결별하고 교회, 義化, 성사에 관한 그의 고유한 사상을 전술한 바와 같이 피력하였다.⁴⁰⁾

또한 1541년 9월 20일에 제네바 시의회는 칼빈의 교회제도에 관한 ‘교회 법규’(ordonnances ecclésiastiques)를 제정하였는데 여기서 칼빈은 교회안에 牧師(pasteurs, Prediger), 博士(doc-teurs, Lehrer), 長老(anciens, Alteste), 副祭(diacres) 등의 4개의 教職을 설정하였다. 목사와 박사는 설교를 통한 본연의 사목임무를 수행하고 장로는 목사들과 함께 평의회원과 宗務局을 구성하여 시민들의 품행을 감독하였는데 그 누구든지 교회와 시민사회의 질서를 위반하기만 하면 모두 처벌받게 했고 이러한 교회징벌에 응하지 않는 자는 시의회에 넘겨 俗權의 처벌을 받게 하였다. 그리고 부제는 교회시설을 관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도록 하였다.⁴¹⁾

칼빈은 진리와 신앙은 오직 하나일 뿐이라는 신념을 확고히 지니고 있어서 종교관용사상은 일체 허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神의 말씀에 거역되는 명령을 내리는 暴君(tyrant)에 대해서는, 비록 각 개인들에게는 不許했지만, 전통적인 身分 세력이나 身分會에게는 抵抗權(ius resistandi)을

35) Ibid.

36) Willem Balke, Calvin and the Anabaptist Radicals, trans. by william Heynen (Michigan, 1981), pp. 110–111.

37) 최석우, 『敎會史』, pp.332–333.

38) Ibid., p.333.

39) Ibid., p.334.

40) Ibid., p.330.

41) Ibid.

容認했다.⁴²⁾ 그런데 만일에 폭군의 힘이 막강하여 저항할 수 없을 경우에는 移民權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토마스 문짜(Thomas Muntzer, ca. 1490~1525)를 그 지도자로 한 과격한 재세례파운동은 1521년에 발생했는데 그 중심사상은 목시록적인 千年王國說(millenarianism)로서 최후의 심판과 神의 나라가 가까워 왔음을 주장하였다. 이 교파의 특징은 유아세례의 성사적 의미를 부인하고 성년에 달하여 확고한 신앙을 가졌을 때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함을 주장한 점으로 Moravia지역에서는 共產的인 사회건설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들은 계급과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신자들의 공동사회에서의 공동노동과 이익의 공동분배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 극단적인 과격파인 재세례파속에는 사회의 하층민과 무교육자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모든 기존질서에 반감을 가지고서 기존의 법이나 도덕을 무시하고 각자의 양심이 바로 법과 도덕의 원천이라고 주장 – 일명 도덕을 폐기론(antinomianism) – 하였다.⁴³⁾

1535년 네델란드 출신의 재단사인 라이덴의 존(John of Leyden)을 중심으로 한 재세례파의 한 집단은 루터를 점령하여 →夫多妻制를 실시하는 등 사회적 패륜을 일삼으로서 심한 박해를 받았는데 오늘의 케이커교도(Quakers), 침례교(Baptists), 메노파(Mennonites) 등은 그들의 후예이거나 그들과 관련을 가진 교파들이다.

종교 사상사적인 면에서 이를 교파들은 다음과 같이 미래의 정치·종교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씨앗을 뿌려 놓았다. 즉 i) “神은 인간들을 평등하게 여기고 있고” ii)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살게 하였고” iii)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의 心靈 깊숙이에서 우러나오는 하느님의 거룩한 灵의 反影인 ‘內的 光’(Inner Light)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미래에 자유·평등의 정치사상과 靈性主義의 신앙의 발전을 위한 씨앗을 뿌려 놓았다.⁴⁴⁾

2. 가톨릭 : 개혁 교황들, 예수회, Council of Trent

16세기 가톨릭교의 종교부활운동은 두가지 양상을 지니고 있었다. 하나는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자체처럼 종교적 부활, 즉 누적되어 온 교회의 폐단에 대한 반발과 교회와 사회의 세속화에 대한 저항의 양상을 지니고 있었고 또 하나는 당대 최대의 종교적 혼란을 초래한 프로테스탄트운동에 대한 자기방어적 성격을 지닌,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反宗教改革(Counter Reformation)의 양상을 지니고 있었다.⁴⁵⁾ 전자는 15세기 말 이전 Ferdinand公과 Isabella여왕 치세시에, 특히 이사벨라 여왕의 경건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스페인에의 수도원의 개혁을 비롯한 교회의 淨化운동을 그 중요 특징으로 지녔고⁴⁶⁾ 후자는 1540년에 이냐시오 로욜라에 의해 결성된 「예수회」(Society of Jesus)의 反종교개혁 활동과 1545년~1563년간에 세차례에 걸쳐 고위 가톨릭성직자들이 트리엔트에 모여 가톨릭 교회조직, 교리, 교회기강 등을 재정비한 트리엔트 공의회(Council of Trent) 운동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⁴⁷⁾

42) Herbert Butterfield, "Christianity In History", p.392 右.

43) Ernst Troeltsch, The Social Teaching of the Christian Churches, Volume Two (London, 1950), pp.695~696 ; 712~714.

44) Ibid : Herbert Butterfield, op.cit., p.391.

45) Herbert Butterfield, op. cit., pp.392~393.

46) Ibid., p.393.

47) Ibid.

이러한 가톨릭 부활운동의 신학적·철학적 토대는 일명 후기 스콜라학파 또는 살라만카(Salamanca)학파라고도 불리우는 16세기 르네상스기의 스페인에서 크게 발흥하였던 스콜라티시즘이었다.⁴⁸⁾ 그런데 어찌해서 16세기 스페인에서 스콜라티시즘이 크게 부활하였던가? 그것은 A.D. 8세기 이후 500년간 스페인은 회교도인 무어족의 지배를 받아 오면서 가톨릭신앙을 고수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쟁을 해왔고⁴⁹⁾ 또 한편으로 스페인은 유럽에서의 地政學의 위치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적 덜 르네상스의 충동이나 또는 종교개혁의 열기로 인한 종교분열과 대립의 현상에 감염되었기 때문이다.⁵⁰⁾

스페인에서의 스콜라사상의 更生은 크게 두개의 종교적 단체와 관련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는 도미니쿠스회였는데 여기에는 Cajetan, De Sylvestris, Francis of Vitoria, Dominic Soto, Melchior Cano, Dominic Banez 등이 소속되어 있었고, 또 로욜라가 세운 예수회에는 Toletus, Molina, Vásquez, Lessius, St. Robert Bellarmine와 특히 Francis Suárez가 소속되어 있었다.⁵¹⁾

물론 기타 수도회로서 Lychetus를 중심으로 한 프란시스코 교단도 있었지만 위의 두 교단에 비해 활동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다.

1540년에 수립된 예수회는 특히 트리엔트 공의회가 시작한 反(動)宗教改革의 활동과 긴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예수회는 수 많은 학교, 전문대학 및 종합대학을 세워서 가톨릭 신자들의 지적 생활을 深化·擴大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신학적·철학적 논의와 토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⁵²⁾ 그런데 16세기 예수회와 도미니쿠스회간에 神의 恩寵과 인간의 自由意志와의 관계에 관해 벌인 신학적 논쟁은 프로테스탄트들의 신앙상의 도전에 임하여 가톨릭교측의 교리상의 재정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양 가톨릭교단의 신학적 논쟁의 내용을 검토하는 일은 매우 진요하다.

예수회 소속의 신학자 Luis de Molina(1535－1600)는 수년간 포르투칼의 Evora대학에서 강의를 해왔는데 그는 1589년에 지은 자신의 저서인 『神의 恩寵과 神의 韻智, 攝理, 豫定 및 咽呴에 대한 자유의지의 同義』(Concordia liberi cum gratiae donis, divina praescientia, providentia, praedestinatione et reprobatione) (Lisbon, 1589)에서 인간의지의 자유로운 동의개념을含有하고 있는 ‘有效한 恩寵論’(efficacious grace)을 피력하였다.⁵³⁾ 즉 이 ‘유효은총’은 본질적으로 ‘충만은총’(sufficient grace)과 다를 바는 없지만 그러나 ‘유효은총’은 神의 은총에 대해 인간의 자유의지가 동의함에 의해서만 그 은총이 효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의 반응과는 전혀 무관하게 작용하는 ‘충만은총’과 다르다⁵⁴⁾고 하였다. 그런데 그는 神은 어떻게 인간의 의지가 神의 은총에 동의하는지를 아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神의 “媒介認識”(scientia media)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였다. 즉 神은 이 媒介認識에 의해서 인간의 온갖 의지작용을

48) Frederick Copleston, A History of Philosophy, Volume III, pp.335－352.

49) Henry Kamen, Spain 1469－1714 : A Society of Conflict(London and New York : Longman, 1983), xii－xiii.

50) Frederick Copleston, op. cit., p.335.

51) Ibid., pp.336－337.

52) Frederick Copleston, op. cit., p.342.

53) Ibid.

54) Ibid.

사전에 간파하여 인간의 의지가 기꺼이 신의 은총을 받아들이도록 이끈다고 하였다.⁵⁵⁾ 이러한 Molina의 입장은 같은 예수회 신학자인 Bellarmine과 Suárez의 ‘適應恩寵’(congruous grace) 개념에 의해 다소 수정을 받아 神은 그때 그때마다의 상황에 부합되게 은총을 내려 인간의 자유의지의 동의를 받아낸다고 하였다.⁵⁶⁾

한편 도미니쿠스회 소속의 신학자 Bánèz는 神은 모든 유익한 행동들의 원인이고 또 神의 인식과 활동은 인간의지의 자유로운 행위보다 반드시 先行하고 또 독자적으로 작용한다는 신념에 입각하여 전술한 Molina의 주장은 神의 은총의 권능을 인간의지에 종속시켰다고 공박하였다.⁵⁷⁾

또한 Bánèz는 ‘유효은총’은 본질적으로 ‘총만은총’과는 다르며 이 ‘유효은총’은 그 효력을 자신의 본질적인 특성에 의해서 얻는다고 주장하였다.⁵⁸⁾ 그래서 그는 Molina의 “媒介認識”(scientia media)은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고 훨난하면서⁵⁹⁾ 神은 예정된 摺理(predetermining decrees) – 神은 이것에 의해서 인간이 어떠한 행위로 나아가도록 예정한다(physical premotion)고 주장했음 – 에 의해 미래의 인간의 자유의지의 動態를 비록 그것이 상황에 따라 달리 반응하는 條件의 인 자유의지의 행동일지라도 여실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하였다.⁶⁰⁾

그러나 Bánèz는 자유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곧 그는 神은 부자유한 행위자들(non-free agents)은 필연적인 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 자유로운 행위자들은 그들이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방임한다고 하였다.⁶¹⁾

그런데 16세기에 새롭게 부각된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가톨릭 개혁가들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였나? 이미 1555년의 Augsburg 종교和議의 정신인 ‘cuius regio, eius religio’에 따라 세속통치권은 종교영역에 까지 미치게 되어 일약 교회의 裁治權은 국가영역에 귀속된 것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자아내었으나 가톨릭 교회측에서는 이를 단호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왜냐하면 교황聖座(the Holy See)에 주어진 지위와 가톨릭 교회이념 및 교회의 사명인식은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⁶²⁾ 이 문제에 관해 초기경 Robert Bellarmine은 그의 저서『교황권』(De Summo pontifice, 1581; (증보판) De potestate summi pontificis, 1610)에서 교황은 세속문제에 관한 직접적인 권한은 지나지 못해도 ‘간접적 권한’은 지니고 있다고 하면서 세속적 이해관계와 靈神的 관심이 상충할 시에는 필히 靈神의 관심이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⁶³⁾ 이것은 결코 Bellarmine이 세속지배자가 교황의 대리자라는 것을 의미하려 한 것은 아니고 단지 인간은 세속적 목적보다 超自然의 목적이나 또는 審美的인 神觀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신학적 교리를 적용한 것에 불과했다.⁶⁴⁾

위와 같은 주장은 恣意的인 종교정책을 실시하는 영국왕 제임스 I 세를 겨냥하여『가톨릭 신앙의

55) Ibid.

56) Ibid., p. 343.

57) Frederick Copleston, op. cit., p. 343.

58) Ibid.

59) Ibid.

60) Ibid.

61) Ibid.

62) Ibid., p. 346.

63) Ibid.

64) Ibid., pp. 346–347.

보호』(Defensio fidei catholicae) (1613)라는 저서를 지은 Francis Suárez에 의해서도 똑같이 표명되었다. Suárez는 Bellarmine과 마찬가지로 세속통치자가 교황의 대리자라는 생각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세속통치자들이 大權이 직접 神으로부터 유래하였다는 主權神授說論者들의 주장도 배격하였다.⁶⁵⁾ 그리고 이들은 세속통치자의 정치적 主權은 직접 정치공동체로부터 위임 또는 양도받았다는 공도체주권론 내지 국민주권론을 주장하였다⁶⁶⁾ Bellarmine과 Suárez도 세속통치자의 권위가 궁극적으로는 神으로부터 委任받았음을 인정했지만 – 왜냐하면 모든 합법적인 권위는 궁극적으로 神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정통적인 정치적 권위는 공동체로부터 유래한다고 주장했다.⁶⁷⁾ 이들의 이와같은 주장은 왕당파들의 군주주권론을 묵살시키는데 크게 기여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이들의 主權이론이 결코 교회선전을 위한 것이거나 또는 교회정치학을 위한 이론의 편린은 아니었다.⁶⁸⁾

이미 국민주권설은 11세기 Manegold of Lautenbach와 12세기의 John of Salisburg, 13세기의 Thomas Aquinas, 그리고 14세기의 Ockham 등이 주장했다.⁶⁹⁾ 그래서 Bellarmine과 Suárez는 단지 이전의 스콜라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를 물려받았을 뿐이었다. 다만 정치적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왔다는 이론을 당대의 구체적인 역사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보다 공식적이고 명백하게 표명했을 뿐이었다.⁷⁰⁾

한편 스페인의 예수회원인 Mariana(d. 1624)가 정치적 壓制에 대한 구제책으로써 불행하게도 폭군살해(tyrannicide)를 강구 – 그는 『국왕과 왕정』(De rege et regis institutione) (1599)을 지어 프랑스 국왕 앙리 3세의 살해를 옹호하였는데 이로 인해 그의 저서는 프랑스 고등법원에서 불살려 졌다 – 한 것은 중세기 동안에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왔던 압제에 대한 저항의 정당성의 원리를 다소 급진적으로 표명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⁷¹⁾

지금까지 16세기 가톨릭 개혁사상 형성에 일익을 담당하였던 르네상스기의 스페인에서 부활한 스콜라티시즘의 신학이론과 철학 그리고 정치사상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 보았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스페인에서 이러한 가톨릭 개혁사상이 등장하기 앞서 비록 그것이 커다란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이미 15~16세기 교황들에 의해서 교회안에서의 위로부터의 개혁인 소위 ‘머리의 개혁’(reformatio in capite)이 추진되었던 점 – 예컨대 마르띠노 5세(1417~1431), Pius 2세(1458~1464), 식스토 6세(1471~1484), 알렉산델 6세(1492~1503), 율리오 2세(1503~1513), 레오 10세(1513~1521), 하드리아노 6세(1522~1523), 클레멘스 7세(1523~1534), 특히 Paul III (1534~1549), Paul IV (1555~1559), Pius V (1566~1572), Sixtus V (1585~1590) 등에 의해 추진됨 – 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⁷²⁾

단지 당시의 교황들은 바오로 3세(1534~1549)와 聖人 교황 비오 5세(1566~1572)를 제외

65) Frederick Copleston, op. cit., p.347.

66) Ibid.

67) Ibid.

68) Ibid.

69) Ibid.

70) Ibid.

71) Ibid., pp.347~348.

72) Edward M. Burns, op. cit., p.467; August Franzen, Kleine Kirchengeschichte, Freiburg 1965, S. 340~343.

하고서는 教會史家 아우구스트 프란첸(August Franzen)이 지적한 바와같이 가톨릭 개혁案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内的, 종교적 역량을 지니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⁷³⁾ 오히려 이러한 추진력은 스페인의巴斯커 지방의 귀족출신으로서 한때 나바라의 스페인王의 군대의 장교로 근무하였고, 1521년에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심한 부상을 입고 병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傳記를 읽고 완전히 回心하여 그리스도의 투사가 된 심오한 신비사상가로서 후에 聖人品에 올랐던 이냐시오 로욜라(Ignatius von Loyola, 1491~1556)에 의해서 발휘되었다.

그는 몸소 그리스도 투사의 정신 – ‘오로지 하느님의 보다 큰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정신’(Omnia ad maiorem Dei gloriam) – 으로 무장하여 전통적인 교회제도와 하느님의 대리자(Vicar)인 교황의 권능이 靈神的 교회(ecclesia spiritualis)관과 犯性主義 神學에 물론 프로테스탄트들에 의해 크게 도전받는 현상을 타파하려 하였다.⁷⁴⁾

전술한 바와같이 그는 1537년에 예수회를 결성하고 1540년 9월 27일에는 교황 바오로 3세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아 세계곳곳에서 가톨릭 신앙을 전파하려 하였다.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은 그의 신봉자들은 세계곳곳에서 불교도, 모슬렘, 인도의 파시교도(Parsees) 및 신대륙의 인디오들을 布教대상으로 삼고 가톨릭교를 적극 전파하였다.⁷⁵⁾

또 한편으로 로욜라는 신학교를 비롯한 수 많은 학교들을 유럽과 기타 지역에도 지어 – 당시 16세기 스페인내에서 지은 모든 학교들과 그리고 프랑스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예수회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 그리스도 교육사업에도 헌신하였다. 그런데 로욜라는 어떠한 종교적 신념을 지니고 이러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을까?

그는 교회에서, 다시 말해서 로마교회에서 불멸의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는 託身의 신비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인간적인 것, 가련한 것, 약한 것은 神人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이다. 사실 그리스도는 그것을 구속하기 위해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다. 영신적 교회는 비현실적이고 따라서 또한 비그리스도적이다. 이냐시오 로욜라는 인간적인 것을 긍정하였고, 다만 죄악과 투쟁하려 하였다. 제도적인 교회는 그에게 있어서 계속 살아계신 그리스도였다. 그러므로 그는 이 교회를 위해 솔직히, 실질적으로, 용감히 또 조건없이 봉사하기를 일순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의 시야는 그리스도의 것인 ‘세상’을 향해 개방되어 있었다. 여기서 바로 구원의 신비가 실현되는 것이다. 그는 바로 ‘세상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신비사상’에서 생활하였다.⁷⁶⁾ 그래서 그는 종교개혁가들의 주관주의와 심령주의, 자기 양심을 중거로 끌어대는 것에 대해 최고 권위인 교회와의 결합을 내세웠다. 그에게 있어 교회에 대한 순종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리자의 직무인 교황좌에 대한 그의 무조건의 충성은 곧 그리스도에 대한 봉사를 의미하였다.⁷⁷⁾

이와같은 그의 對 교회적 자세의 원칙은 그의 묵상서에 자세히 기록되었는데 여기서 주어진 지시, 또는 ‘교회에 대한 올바른 자세규정’은 트리엔트 후기의 정신을 아래와 같이 결정지어 주었다.

73) August Franzen, a.a.0., S.341.

74) A.a.0., S.357~359.

75) Edward M. Burns, op. cit., p.470.

76) August Franzen, a.a.0., S.358.

77) A.a.0., S.359.

즉 항상 다만 신앙만을(sola fides) 말해서는 안되며 善業에도 의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중이 냉담하고 태만하여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은총만이(sola gratia)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고만 늘 이야기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유를 말살하는 毒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언제나 豫定에 대해서만 언급해도 안된다. 하느님의 은총적 선택이 있고, 그것이 없으면 아무도 구원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인간이 은총과 협력해야 하는 것도 강조되어야 한다. 뿐더러 이 문제와 기타 모든 문제에 있어서 位階的인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유효하다.⁷⁸⁾ 아무도 聖書를 자기자신의 주관적 의견을 따라 해석할 권리(sola scriptura)가 없다. 그것을 有權의으로 해석하는 것은 최고 教導權의 권리이다.⁷⁹⁾

이렇게 이냐시오 로욜라는 그의 묵상서에서 신과 인간, 은총과 자연의 협동이란 전통적 가톨릭 교리—일명 神人協力說(synergism)—를 강조하여 마지않았다. 곧 그는 종교개혁가들의 다만 성경에 의해(sola scriptura), 다만 신앙만으로(sola fides), 다만 은총에 의해서(sola gratia) 등의 일방적인 강조에 대해 가톨릭의 종합을 내세웠다. 그리고 그는 건전한 종교적·교회적 정신에서 신앙상의 오류와 악습과 투쟁하면서 교회와 신앙인의 내적인 부흥과 쇄신을 꾀하려 하였다.⁸⁰⁾

이처럼 16세기의 가톨릭 개혁운동 또는 프로테스탄티스트들의 종교개혁에 대한 가톨릭의 反宗教改革(Counter Reformation) 운동은 i) 종교개혁이전서부터 진행된 교황의 ‘머리로 부터의 개혁’(reformatio in capite) 운동—교황이 솔선해서 초기경단의 구성을 쇄신하고 또한 교회내의 여러 폐단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한—과 ii) 스페인의 후기 스콜라학자들이 13세기 이후 정통 가톨릭신학의 토대를 이뤄 온 토미즘(Thomism)을 부활시킨 운동, iii) 이와 軌를 같이 하면서 약화된 가톨릭教勢를 강화하기 위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宣敎활동을 펴온 이냐시오 로욜라와 예수원들의 활동등으로 이어져 왔는데 주지하다 싶이 이 운동은 1545~1563년간의 Trent 공의회의 會期 동안에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결코 순탄하게 진행되지만은 아니했다. 교황은 콘스탄쓰와 바젤의 공의회에서 공의회 首位說의 등장 이후 공의회개최를 달가와 하질 않았고 또한 공의회를 적극 개최하려는 신성로마황제하고도 입장이 맞지 않아 공의회 개최가 여의치 않았다. 교황은 종교개혁가들의 출현이 어디까지나 기존의 가톨릭교리상에 일부 모호점으로 빚어진 것으로 생각하여 教義上の 재정립을 議題로 삼고자 했음에 비해 황제는 종교분열의 심화로 帝權의 분열과 와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하여 가급적 빨리 종교개혁을 통해 新·舊兩교회의 일치를 이루고 이 위에서 帝權의 강화를 도모하였다. 또 공의회 기간에 전염병의 창궐과 프로테스탄트 동맹군(슈밀칼덴 동맹군)의 위협으로 의회가 중단되고 회의장소도 이동되는 사례도 발생했으나 결국은 트리엔트에서 제3의 會期를 무사히 마치면서 가톨릭 교회내의 개혁과 教義재정립을 성공리에 이룩했다.⁸¹⁾

트리엔트 공의회의 經過를 간단히 서술하면 아래와 같다.

- 1) 제1회기(1545~1548) : 공의회는 제4차 회의에서(1546.4.8) 프로테스탄트의 ‘다만 성서 원칙’에 대해 聖書와 聖傳이란 두개의 신앙 원천설을 내세웠다. 즉 聖傳도 古來의 가톨릭적 해석을

78) ebenda.

79) August Franzen, a.a.0., S.359.

80) ebenda.

81) A.a.0., S.339~350.

따라 ‘동일한 畏敬으로써(pari pietatis affectu) 신앙 원천으로 존중시되어야 한다. 성서만의 일방적 제한은 異端的이라고 하였다.⁸²⁾ 제5차 및 제6차 회의에서 原罪와 義化에 관한 토의가 있었다. 프로테스탄트의 ‘다만 은총설’과 人性의 절대적 타락설이 배척되었고 또 신앙과 사랑의 정신으로 善業의 공로를 쌓는 사람들은 은총지위에 있게 됨을 인정하였다.⁸³⁾ 제7차 회의에서 성사에 대한 교리가 전체적으로만이 아니라 개별적으로도 세례와 堅振성사에 관한 교리가 定義되었다.

2) 제2회기(1551~1552) : 성체성사가 심의되었고 이때 그리스도의 現存과 化體說(=全質變化論)이 명백히 정의되었다(13차 회의). 다음 고백성사(sacrament of penance)와 痘者성사(=終傳성사) (sacrament of extrême úncion)가 다루어졌고(14차 회의), 여기서 특히 救罪의 성사적 성격, 비밀告解, 補贖 등이 뚜렷하게 정립되었다.⁸⁴⁾ 이 공의회 회기중인 1552년 1월에 프로테스탄트들이 황제의 알선으로 공의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들은 공의회의 신앙교령이 성서원칙에 입각할 것과 공의회가 완전히 교황으로부터 해방되어 공의회의 수위권이 선언될 것, 그리고 모든 주교들이 교황에 대한 충성선서로부터 면제될 것 등을 주장하였다. 이에 교황은 일시 회의중단으로 맞섰는데 독일제후들이 이 조치에 반발하여 대대적인 봉기를 일으킴으로써 공의회 제2회기는 마감하게 되었다.⁸⁵⁾

3) 제3회기(1562~1563) : Hugunots派의 큰 발전과 프랑스의 전국 교회회의 개최 등의 절박한 상황이 이 공의회개최의 동인이 되었는데 이 회기에서 성과가 가장 컸다. 이 공의회의 중요 심의대상은 다시 성체성사와 미사성제(21차 및 22차 회의), 사제서품(23차 회의), 혼인의 聖事性(24차 회의)에 관한 것이었다. 혼인성사에 관해서는 혼인자들이 소속한 본당신부와 2명의 종인 앞에서 체결되지 않는 한 모든 혼인이 무효라는 것이 결정되었다.⁸⁶⁾ 또한 1563년 12월 3~4일 제25차 회의에서 懲獄(purgatory), 大赦(indulgence), 聖人과 聖物恭敬, 聖書像 사용에 관한 교令이 반포되었다. 이로써 공의회는 폐회되었다.

이와같이 트리엔트 공의회에서의 결정은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에 대한 교회의 최고 教導職의 대답이었다(H. Jedin). 그것은 論爭神學的인 대답이 아니라 쐐신된 교도직에 의한 가톨릭 신앙 교리에 관한 명확한 선언이요, 교회의 내부적인 自覺이요, 참된 종교개혁이었다.⁸⁷⁾

그러나 여전히 구원활동에 있어서 신의 은총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느만큼 작용하는가 하는 예수회원들과 도미니쿠스회원들간의 오랜 논쟁의 씨앗은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에도 남아 있었고⁸⁸⁾ 뿐만 아니라 성체성사시에 하느님의 現存과 化體현상에 관한 해석상에서도 당시 가톨릭교내에서는 약간의 견해차가 잔존해 있었다⁸⁹⁾ 특히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 스페인의 예수회 소속의 主教들은 자신들의 靈神的 권한이 로마 교황을 통해서가 아니라 神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地上에서 靈神的인 면에서 하느님의 대리자로서의 거룩한 교황의 교도직에 손상을 입히기도

82) August Franzen, a.a.0., S.347.

83) ebenda.

84) A.a.0., S.348.

85) A.a.0., S.349.

86) A.a.0., S.349~350.

87) August Franzen, a.a.0., S.350.

88) Herbert Butterfield, op. cit., p.394.

89) Ibid.

했다. 그 결과 교황청이 1773년에 예수회의 폐지를 명한 불운한 일이 가톨릭 教界내에서 발생하기도 했다.⁹⁰⁾

지금까지 종교개혁기에 프로테스탄트들의 소위 ‘교회밖에서의 본격적인 종교개혁적 차원의 주장’과 그리고 가톨릭교측의 ‘교회내에서의 개혁과 教義 再定立’의 노력을 검토해 보았는데 끝으로 어느 입장이 보다 더 기독교적 진리에 더 접근해 있는지를 결론부분에서 省察해 보도록 하자.

IV. 결 론

먼저 16세기의 로마 교회와 교황권은 인류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靈的 職分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는가를 反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종교개혁과 종교전쟁의 와중을 겪고 난 지금의 평온한 심정에서 16세기의 종교적 격변을 돌아보았을 때 과연 당대 프로테스탄트들의 주장은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격정적이었지 않았었나? 하는 점도 반추된다. 그렇지만 프로테스탄트들의 주장은 그 과격성과 다소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독교의 教義를 정밀하게 다듬도록 촉구하여 기독교의 신학적·철학적 인식의 幅과 범위를 넓혀 준 점은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들의 세가지 다만(sola) 설은 기독교의 심원한 啓示信仰을 일방적으로 단순화하고 主意主義化한 과오를 범한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 성경의 복음말씀을 확고한 믿음(신앙)으로 받아 드리지 않고 또한 이에 神의 은총이 선택적일 망정 성령을 통하여 믿는 자들의 心靈에 작용하여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촉구하지 않는다면 비록 세례받은 신자일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리라는 프로테스탄트들의 주장에는 충분히 신앙적 진리가 담겨져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세 五經을 포함한 구약성경의 내용은 기원전 2000년경 유태민족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출현한 이후 기원전 2세기경까지의 유태민족의 술한 종교적·윤리적 체험과 정치적 수난과정이 유태민족의 昇華된 종교감정과 얹혀져 기록되어진 내용이며 또한 신약의 4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 생전 당시의 사도들의 직접적인 전도활동이 幕을 내리기 시작한 A.D. 50년경부터 A.D. 150년경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言行과 奇蹟, 그리고 사도들의 전도내용을 담고 있는 기록들이다. 따라서 성경상에는 하느님의 유태민족과 전체 異邦人(전 인류)들의 구원을 위해 啓示하시고 役事하신 내용들이 전부 망라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이러한 緣由로 오래동안 口傳되어 오거나 또는 典體上으로 지켜져 온 제반의 교회의 傳式과 관행인 聖傳(traditio)도 중요한 원천으로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런데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프로테스탄트들은 이러한 聖傳을 신앙의 원천으로부터 완전히 배제해 버렸고 또 한편으로 그들은 神의 絶對主權과 신의 은총, 그리고 오로지 성경만을 주장하면서 성경속에 含有되어 있는 하느님의 啓示的 진리를 해설하고 지도할 성직자들의 고유한 教導權(auctoritas magisterium)을 부인하고 萬人司祭說과 선택된 소수만의 성경해석권을 주장함으로써 하느님의 계시적 진리를 올바로 보존하고 전파해야 될 성스러운 教職의 기능을 저하시켰고 성경해석을 주관적인 개인의 靈的 체험에 맡김으로써 많은 혼란과 오류를 초래하였다. 16세기에 禁書目錄(Index)의 작성과 또한 異端追방과 魔女사냥을 위해 폐단이 큰 종교재판소(Inquisition)

의 설치라는 극단적인 처방이 나오게 된 배경도 그러한 까닭에서였다.

또 한편으로 프로테스탄트들이 인간의 이성과 자유의지의 善業功勞가 神의 구원의 은총을 招致할 수 있는 소위 神人協力說(synergism)의 素地를 배제해 버린 것도 성서 및 신앙적 진리에 위배된다. 물론 하느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全知全能한 분이시지만 인간은 神의 模像(imago dei)을 마지막으로 창조된 유일한 존재이다.⁹¹⁾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30여년간 人性(corpus et persona ; flesh)을 지닌채 役事하셨듯이 우리 인간들은 神性(divinity)에 참여하여 이바지할 수 있는 蓋然性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90) Ibid., p.395.

91) 한스 발터 볼프 지음, 文喜錫 옮김, 「舊約聖書의 人間學」(神學叢書 第10券／歷史神學 舊約編 No.4 (서울 : 문도출판사, 1976), pp.79-81, 370-180.

A STUDY OF REFORMATION AND COUNTER REFORMATION

Sun, Goon-sung

Abstract

In contemporary points of view this article provides a comparatively critical analysis of the Christian theology and dogma which the Protestant protagonists and Catholic reformers contented during the age of what it called "the Reformation and Counter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in Europe.

Through this analytical criticism this essay also intends to make it clear that which one of both christian dogma indeed had been near to the revealed truth of christian religion.

The Protestants' assertions were as follows : i) "Man could be delivered only by the Scripture(sola scriptura), only by the faith(sola fide), and only by the grace(sola gratia dei)." This "only three" dogma made up keynotes of the soteriology(救援論) of the Protestant reformers who attacked the Roman Catholic Church and especially the papal power(papacy) with these dogmatic weapons. ii) Besides they paid no heed to the traditions of church(traditio) inherited from thousands of years of ecclesiastical history. In fact the Bible (Scripture) and traditions of church together had composed of the source of the christian faith. Notwithstanding they ignored the 'traditio ecclesiae.' That was a great fallacy. iii) In addition to this they denied the authority of the Pope as a Vicar of Christ in the earth and the successor of St. Peter to expound and instruct the Bible and to guide the spiritual world(auctoritas magisterium), therefore they had no recognition of the supremacy of papacy over other bishops and the council of church as well.

Such a denial of papacy, of course, resulted in the abuses of the Roman Catholic Church conspicuous during the Renaissance age. Really the Catholic Church and the Pope at that time were so much steeped in the Renaissance humanism and secularism that they were as a whole indifferent to the abolition of abuses and malfunction of church. They also were much in need of money to keep the priesthood and to rebuild the obsolete cathedral. In this situation the Renaissance Pope reluctantly permitted the simony, that is, the selling of church offices to the magnates. That was a lucrative business for the needy Roman Catholic Church in the 16th Century. According to the recent estimate, the Holy See at this juncture earned money of about two million dollars in a year by selling holy offices to rich laymen.

While Martin Luther, Zwingli, John of Calvin, and Thomas Müntzer formed the so-called Protestant reformers, a certain Renaissance Pope—especially Paul III(1534—1549), Pius IV

(1566 – 1572) –, The Society of Jesus(1540 – 1773), and Council of Trent(1545 – 1563) pushed ahead with what a man calls “The Counter Reformation” movement.

During the Catholic Reformation or the Counter Reformation the Society of Jesus and the Council of Trent in particular played the most important role in reconfirming the vague credo or dogma in the christian theology, as it were, the ideal of christian church, the supremacy and infallibility of the Pope, the sacrament(sacramentm) establishments, celibacy of the priests etc. as well as in abolishing the abuses in the Catholic Church such as the selling of Indulgence (indulgentia), the levy of dispensation fees and tithes and so on.

Ignatius von Loyola(1491 – 1556) insisted upon the supremacy of the Pope and he himself gave the absolute loyalty to the Pontiff. And he upheld both Bible and tradition of church as the same source of faith and criticized the Protestants' only three dogma as an insufficient and harmful one. Moreover he established a great many seminaries, colleges and universities for the purpose of propagating and instructing the renewed Catholic dogma and discipline all over the world.

The Council of Trent that held three sessions from 1545 to 1563 in Trent made a final decision on the very important theological issues like the supremacy of the Pope, the significance of the sacrament(sacramentum) establishments(Baptism, Confirmation, Penance, the Eucharist(the Holy Supper), Matrimony, the Extreme Unction, Ordinace), the synergism of both grace of God and free will of man for the salvation of human being, invocation of saints and admiration of the Holy Images including the Madonna figure that were severely disputed between the Protestant Reformers and the Catholic ones during the Reformation and the Counter Reformation era, and it took drastic measures against such abuses as the selling of the Indulgence, simony, the marrige of the priests and a heavy church tax burden in order to reestablish the Roman Catholic Church upon the renovated ground.

In conclusion the Catholic Church and the Pope in the 15th and 16th Century were too inept to refresh and reestablish the Roman Church and its dogma. In a way the Protestants' claims for the church reform were too vehement and subjective to circulate generally in the Christian devotees at that time. However, the Protestants' criticism against the equivocal Catholic tenets contributed to refine the Catholic doctrine and to remedy an evil remained in the Catholic Church.

In contemporary points of view, it seems to me that both Protestant reformers and Catholic ones each other ultimately came to purify the christian faith and its creeds by a curious coincidence in spite of their fierce strifes for the grasp of the hegemony of the church reform.

That was an irony. However, I guess it was in a sense a God's Providence.